

아침햇발

· 김선주 논설위원

박희부 의원의 '성희롱'적 발언

'조문' 파동으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소홀히 다루지는 경향이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국회에서 의원면책특권을 내세우며 여성 장관에게 '성희롱'적인 발언을 했던 민자당 박희부 의원이 여론의 화살에서 벗어난 사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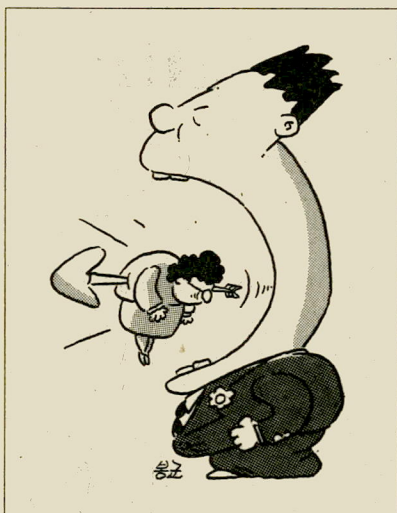
언론계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여성'과 관련한 사건을 접할 때 항상 경계하는 것은 여성이라는 사실이 사태 파악에 영향을 끼쳐 판단을 흐리게 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도를 해도 같은 여성으로부터는 반여성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남자 동료로부터는 여성 시각으로 사건을 본다는 의혹의 눈초리를 받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박 의원의 발언을 문제삼는 것은 남성 중심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크고 작은 '성희롱'과 타협했던 세대의 일원으로서 오늘 직장과 학교, 가정, 심지어는 국회 단상에서까지 관행이란 이름 아래 태연하게 저질러지고 있는 성희롱에 대해 일말의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어서이기도 하다.

아무리 "심장이 두껍다"고 해서, "마빡"을 "바늘로 찔러도 피는커녕 물 한 방울 나오지 않겠다"는 발언에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 여성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장관으로서 의연하게 맞대응한 것으로 보도됐지만 50대 미혼의 교육부장관이 여성으로서의 수치심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의원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되는 이 발언이 다시 거론되는 것이 진정으로 싫은 사람은 발언 당사자인 박 의원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인 김 장관일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심정이 우리 세대 직장여성이 공유하고 있는 정서이기 때문이다. 성적 수치심이 아예 없는 것으로 가장하는 것이 성희롱에 대처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며 그것이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의 미덕쯤으로 치부되던 시절을 살아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나이 선이 났어도 20대 초 직장에서 남성 위주의 세상과 타협하고 '성희롱'쯤은 감내하기로 결심했던 그 첫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회식 장소에서 좌장 옆자리가 비어 있고 그 자리가 필자가 앉을 자리이고 첫술을 그 상사에게 두손으로 공손히 따라야 하는 역할이 주어진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다정해 보이던 남자 동료들의 어서 술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듯한 눈빛, 주춤거리던 사이 일순 주위가 조용해지며 술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가 앞으로의 직장생활이 순탄할 것인가 아닌가를 가늠하게 해주는 것처럼 느껴졌던 그 중압감에서 벗

어나기 위해 술병을 들었던 그 순간이 '성희롱'이 관행으로 자행되던 세상과 타협했던 순간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이나 행동은 분명한 성희롱이다. 얼굴이 빨개지지 않거나 발끈 화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성적 수치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 내색이 남성들의 '장난기'를 자극해 '성희롱' 정도의 강도를 높이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기 때문이다. 장난으로 던진 돌이 개구리에겐 생명을 위협한 것이었다면 법은



당연히 개구리 처지에 서야 한다. 시대가 크게 변해 '장난질'한 교수를 성희롱으로 제소하는 후배들을 보며 항상 돌을 던지는 입장에서 참으라고 동조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시점이기도 하다. 또한 성희롱이 개인적으로 감내할 문제가 아니라 안전하고 편안하게 직장에서 일할 권리를 침해하는 노동권의 문제라는 사실도 뒤늦게 깨닫게 됐다. 박 의원으로 하여금 국회에서 공개적 발언취소나 공개사과를 하도록 해야 하며 김 장관을 대신해 그것을 거들어줄 책임이 우리 세대의 모든 여성에게 있다고 여기는 것도 우리가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관행으로 저질러지던 '성희롱'의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였다는 데 대한 진정한 반성에서이다.